

이번 전시는 판화로만 꾸며 본다. 이젤 페인팅의 복제 용으로 간간이 판화를 찍어온지도 10여년이 넘어 제법 에디션 종류만도 40여종에 이른다. 그러는 과정에서 오일이나 아크릴로 캔버스에서는 도저히 내기 힘든, 실크스크린 스퀴즈로 이루어내는 미묘하고도 섬세한 효과의 맛을 알게되어 거꾸로 그런 효과를 캔버스에서도 내어보려고 해보기도 한다.

작품 명제는 모두 “가까이...더 가까이...”이다. 말 그대로 가까이 다가와서 보아 달라는 뜻이다. 얼핏 보면 내 작품은 단순한 “땡땡이” 무늬 이거나 미니멀한 평면 작업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가는 선, 글씨, 얼룩 등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처음 시각을 미끄러뜨린다.

이른바 모더니즘의 “인증된 이미지 권력”에 흠집내기이다. 이러한 나의 의도는 패러디와 아이러니의 소산이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패러디와 아이러니가 비판적 모더니즘의 페미니즘적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의 작업은 모더니즘과 탈 모더니즘의 경계위에 애매한 듯 교묘하게 서있다.

2001. 11 김용익